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4-25호 / 11월 3일

중국 금리인상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*

I. 개 요

-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0월 28일, 예금 및 대출금리를 각각 0.27% 포인트씩 인상하고, 대출금리의 변동폭 확대 및 예금금리의 변동폭(인하) 허용 단행
 - 이번 조치를 통하여 중국정부는 거시조정정책의 성과제고, 국민경제의 지속·건전한 발전,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효과 기대
 - 대출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하고,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를 상한선으로 변동을 허용함으로써, 금리의 시장화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리스크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 기대

2. 주요 내용

- 금변 조치로 인해 1년 만기 저축예금의 금리가 1.98%에서 2.25%, 대출금리가 5.31%에서 5.58%로 각각 0.27% 포인트씩 인상됨(<표 1> 참

* 본 자료는 巴曙松, 「央行加息透露出的政策走向」(<http://finance.sina.com.cn>), 2004.10.28 및 中國人民銀行, 中國人民銀行決定上調金融機構存貸款基準利率、進一步推進利率市場化」(<http://www.pbc.gov.cn>), 2004.10.28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. 바슈쑹(巴曙松)은 현재 국무원 발전연구중심(DRC) 금융연구소 부소장이며, 중국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임.

조)

-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조정폭도 더욱 확대되었는데, 도시 및 농촌신용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하한선은 종전대로 기준 대출금리의 90%까지 허용
 - 도시 및 농촌신용사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대출 이자율 조정 상한선은 기준 대출금리의 최고 230%까지 허용
- 예금금리는 기준예금금리 이하로 하향변동만을 허용

<표 1> 인민폐 예금 및 대출 이자율 조정표

항 목			이자율 (%)	
			조정 前	조정 後
대 출 금 리	6개월 만기		5.04	5.22
	1년 만기		5.31	5.58
	1~3년		5.49	5.76
	3~5년		5.58	5.85
	5년 이상		5.76	6.12
	개인 주택자금 대출	5년 이하	3.60	3.78
		5년 이상	4.05	4.23
	개인사업자 자금대출	5년 이하	4.77	4.95
		5년 이상	5.04	5.31
예 금 금 리	당좌예금		0.72	0.72
	3개월 만기 저축예금		1.71	1.71
	6개월 만기		1.89	2.07
	1년 만기		1.98	2.25
	2년 만기		2.25	2.70
	3년 만기		2.52	3.24
	5년 만기		2.79	3.60

자료: 中國人民銀行, 「中国人民银行决定上调金融机构存贷款基准利率、进一步推进利率市场化」(<http://www.pbc.gov.cn>), 2004.10.28.

3. 배경 및 효과

- 향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이 ‘행정규제중심’에서 탈피하여 점진적으로 ‘시장친화적’ 수단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됨.
 - 금년 4월말에 시행한 긴축조치는 토지 및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(管住土地, 管紧信贷)하는 행정적 조치가 중심이었으며, 이에 따라 비교적 短期내에 효과 출현
 - 그러나 행정수단을 통한 문제해결, 즉 통제 및 심사에 기초한 거시조정 조치는 경기과열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인 체제적인 결함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됨으로써,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점차 효력을 상실하고 있음.
 - 종전의 행정적인 거시조정조치로 일부 문제점은 완화되었지만, 근본적인 거시경제적 안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 - 따라서 거시조정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체제개혁과 함께 시장친화적인 거시조정정책이 요청됨.
 - 대표적인 것이 이자율과 환율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, 2003년부터 시작된 경기과열도 경제 및 시장상황을 도외시한 이자율과 환율, 특히 대외부문(무역 및 외자)의 과열에서 비롯됨.
 - 향후 중국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 및 환율수준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동시에 가격결정 메카니즘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것임.
- 금번 조치로 금융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바, 은행의 예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, 부동산업의 과열진정에도 기여하겠지만, 반면에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불분명함.
- 금리인상폭이 소폭이며, 또한 경기과열의 주요 원인인 과잉투자현상은 중국경제의 체제적인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금리인상으로 과잉투자 축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.

- 과잉투자의 상당부분이 기초부문 건설 즉 지하철, 교량, 고속도로, 시정 부광장 건설 등이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비탄력적임.
- 다만 소폭이지만 금변 금리인상으로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들의 도태를 통해서 총수요가 조정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음.

4. 시사점

- 금리인상 조치가 단행되었기 때문에, 신용대출의 증감에 따른 경제성장에의 영향을 감안, 2005년도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4/4분기 신용대출 억제 정책을 적절하게 완화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음.
-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의 신용대출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는데, 금년에는 상반기 긴축조치와 금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 대출목표액(2조 6천억 元)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.
- 따라서 내년도 경제성장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,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신용대출 증액이 필요함.

<표 2> 인민폐 신용대출 현황

(단위: 億위안)

		2003 1~3분기		2004 1~3분기	
대출		총 대출액	전년동기대비 증가액	총 대출액	전년동기대비 증가액
		24,700	11,000	17,900	-6,697
분류	단기대출			6,373	-2,194
	중장기대출			9,820	-906
	어음대출			1,432	-3,068

자료: 巴曙松, 「央行加息透露出的政策走向」(<http://finance.sina.com.cn>), 2004.10.28

- 2004년 들어 금리조정, 물가동향, 특히 식료품(특히 쌀) 가격동향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쟁들이 정부통계의 결함으로 말미암아, 정확한 거시분석과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 필요
- 금리인상 논쟁과 관련하여, 다수 학자들이 신용대출의 마이너스(-) 증가 추이에 근거한 금리 인상을 주장한 반면, 일부 학자들은 비공개 자료

인 핵심물가지수 추이에 의거하여 반대 입장 표명

- 물가동향통계는 국가통계국의 소비자물가지수(CPI)와 중국인민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(5천개 기업 대상)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 발생
 - 거시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취업상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전무하며, 또한 물가동향에 중요한 식량 재고, 연도별 소비량 등의 통계가 부재(不在)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
- 금변 금리인상폭이 소폭이고,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과열논쟁이 종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.
- 일부에서는 금년 연말 혹은 내년 연초에 물가상승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이 경우 10·28 조치가 중국이 새롭게 금리상승 국면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, 향후 미국의 금리변동에 따라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 - 따라서 금융시장은 향후 예상되는 금리의 상승추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며, 이에 따른 자산부채구조 조정 등의 대비 필요
 - 반면 중국경제의 체제전환적인 성격 때문에 금리조정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, 향후 경기과열현상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조정이라는 간접적인 정책수단에는 의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음.
- 금변 금리인상 조치를 거시경제조정의 효과보다는 향후 중국이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로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.
- 금변 조치는 대출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하는데 중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대출위험에 따라 대출금리를 결정할 수 있음.
 -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, 이로써 지하금융의 확대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(***)